

| 사회적 대화 논단 |

코로나19 경제위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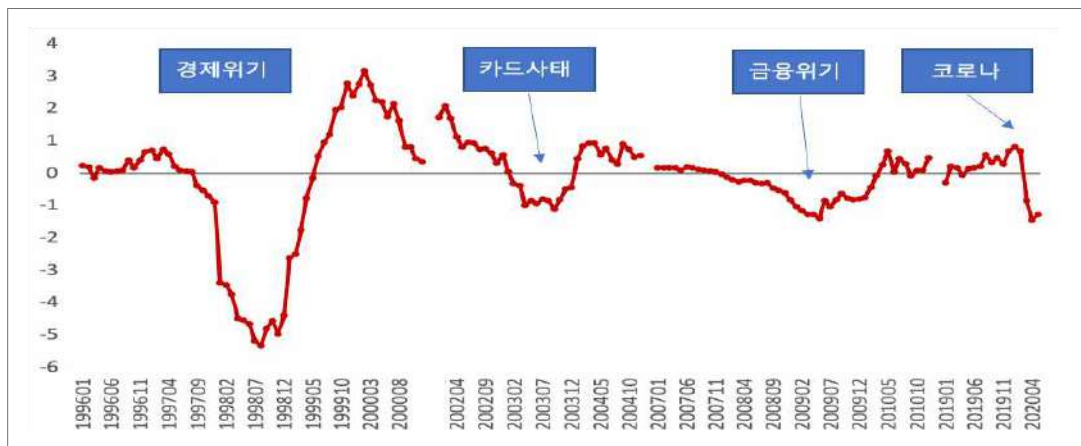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 취약계층에서 충격 크게 나타남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화된 3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5월에도 1.3%p 떨어져 3개월 연속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과거 1998년의 경제위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카드 사태나 금융위기에 비견되는 감소이다.

[그림 1]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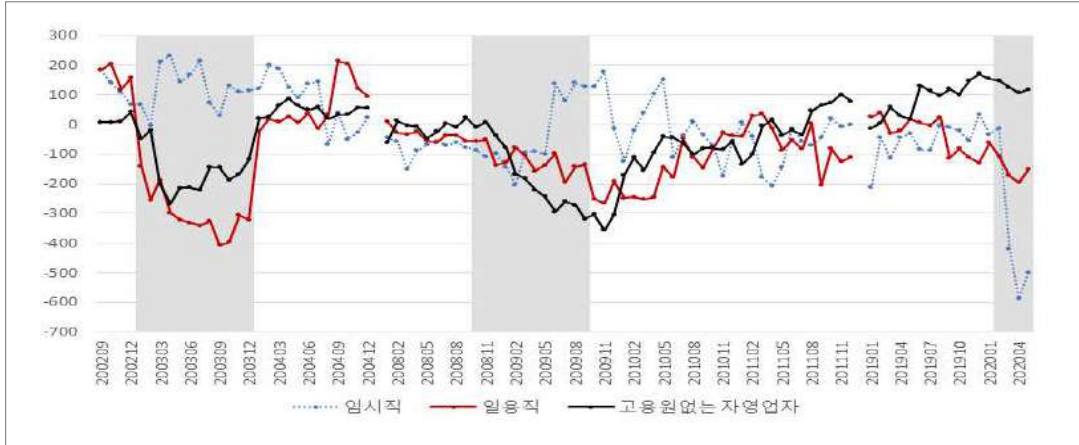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위기 시에 고용이나 소득에 대한 부정적 충격은 노동시장 내에서 보다 취약한 특성을 가지는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실제 학력별로 고용률의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를 보면 위기 시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대졸보다는 고졸 이하 계층인 것으로 나타난다. 카드 사태(2003년) 때 고졸 이하층은 가장 많이 고용률이 떨어진 2003년 9월 전년동월대비 2%p까지 떨어졌으나 대졸 이상 계층은 0.4%p 하락으로 그쳤으며, 국제금융위기(2008년 말) 때는 고졸 이하층은 2009년 5월 1.8%p까지 고용률이 하락했으나 대졸 이상은 1.2%p 하락하여 고용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번에도 고졸 이하층은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2020년 3월 1.1%p, 4월 1.8%p, 5월 1.6%p 하락하였으며 대졸 이상은 3월 0.3%p, 4월 0.7%p, 5월 0.5%p 하락하여 상대적으로 고졸 이하보다는 충격이 덜한 모습이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아도 취약한 쪽에서 좀 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그림 2 참조). 카드 사태 때는 일용직이, 국제금융위기 때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충격이 닥친 현재는 임시직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카드 사태 때는 일용직 중심으로 감소폭이 컸던 반면 현재는 임시직 감소폭이 가장 큰 것은 지난 15년간 일용직이 꾸준히 줄어 취업자 중 과거에 비해 훨씬 소규모 집단이 된 노동시장의 장기 추세 변화와 관련이 있다. 현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다른 위기와 달리 줄어들고 있지 않지만, 이번 위기가 특정 부문에 닥친 경제적 충격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라는 특성상 폐업보다는 조업단축으로 견디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주간에 전혀 조업을 하지 못해서 일시휴직자로 분류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2020년 3월 252천 명 증가하였으며, 4월에는 225천 명, 5월에는 139천 명 증가하여 어떤 위기 시에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증가폭을 보였다. 이와 같이 세 위기 각각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종사상 지위는 시기별 노동시장 상황의 반영으로 차이가 있지만, 모두 상대적으로 취약한 종사상 지위 집단에서 고용충격이 크게 나타났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그림 2]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주: 카드 사태 시기는 2003년을 음영처리, 국제금융위기 시기는 2008.10월~2009.9월을 음영처리, 코로나 시기는 2020.2월부터 음영처리 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대면 서비스업종에서 특히 충격 크게 나타남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협회 단체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가사, 간병, 미용업 등이 이 업종에 해당)에서 주로 고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여성의 고용 충격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서비스업 충격이 큰 영향인데, 5월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약간의 고용 감소폭 축소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위축 영향으로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폭은 남녀 합쳐보면 반대로 조금씩 커지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남녀 모두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된 감소가 나타났다. 특히 여성 5인 미만 사업체에서의 감소는 도소매업(5월 -55천 명), 숙박음식점업(5월 -100천 명), 예술스포츠 여가 서비스업(5월 -45천 명)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남성 5인 미만 사업체에서의 감소는 건설업(5월 -63천 명), 도소매업(5월 -35천 명), 숙박음식점업(5월 -36천 명)에서 주로 나타나 대면 서비스업에서 특히 충격이 큰 이번 위기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1〉 성별 업종별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남성					여성				
	1월	2월	3월	4월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농림어업	54	55	68	45	46	25	25	66	28	8
제조업	24	51	16	7	-10	-16	-17	-38	-51	-47
건설업	8	-20	-33	-73	-73	-2	11	14	14	12
도소매업	-60	-91	-124	-68	-88	-34	-15	-44	-55	-101
운수 및 창고업	64	69	39	16	26	28	30	32	17	24
숙박 및 음식점업	66	20	6	-44	-56	21	-6	-115	-167	-126
정보통신업	-13	-5	13	16	18	-22	-20	-32	-23	-9
금융 및 보험업	-13	-11	-18	2	0	-18	-4	-2	-13	-11
부동산업	16	10	-7	-33	-24	17	15	7	-4	-8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28	27	-11	17	17	21	9	-16	1	-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임대	13	-7	-3	-10	-16	51	42	23	27	-1
공공행정	-21	-9	-40	-27	-20	11	33	-21	-13	-8
교육 서비스업	-8	3	-31	-28	-6	15	-12	-70	-102	-63
보건 사회복지	19	30	27	18	31	170	172	54	60	100
예술스포츠여가	37	29	5	-1	3	32	28	4	11	26
협회단체수리 기타개인	-8	-11	-9	-41	-21	-11	-12	-23	-59	-65
가구내 고용활동	1	1	2	3	3	49	44	35	27	28
계	224	162	-80	-183	-153	344	330	-115	-293	-23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전년 동월 대비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수 증감

(단위: 천 명)

	남성					여성				
	2020. 1월	2월	3월	4월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5인 미만	104	59	-46	-116	-108	185	155	-44	-174	-206
5~9인	-30	-55	-91	-93	-94	-24	-63	-119	-133	-144
10~29인	79	112	70	50	36	53	88	-18	-42	13
30~99인	22	6	24	11	18	97	98	39	18	71
100~299인	-71	-71	-83	-30	-8	8	11	-12	-31	-40
300인 이상	119	111	45	-5	4	26	40	40	68	6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대별로 보면 대부분의 연령대의 고용률 증가폭이 2월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는데, 15~24세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감소폭이 4월보다 나아졌지만, 생애 주된 일자리로의 진입이 중요한 20대 후반은 5월 들어 고용률 감소폭이 오히려 더 커져 신규채용이 얼어붙은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3〉 전년 동월 대비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

(단위 : %p)

	1월	2월	3월	4월	5월
15~24세	0.8	-0.4	-2.7	-3.1	-1.2
25~29세	0.3	-0.8	-2.3	-1.8	-3.2
30대	1.5	1.6	-0.1	-0.9	-1.0
40대	-0.2	-0.5	-0.7	-1.7	-1.7
50대	0.3	0.3	-1.2	-1.9	-1.7
60세 이상	2.6	3.0	0.8	0.2	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 되기 직전인 2월과 5월의 전년동월대비 경활인구 증감을 비교해보면 여성은 취업자 약 57만 명 감소 중 16만 명 정도는 실업으로, 40만 명 정도는 비경제활동인구, 그 중에서도 특히 육아 가사로 대부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도 2월과 5월의 전년동월대비 경활인구 증감을 비교해보면 취업자수가 약 32만 명 줄어들었는데 18만 명은 비경활로, 12만 명은 실업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직전 상황과 비교하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이 비경활로 이동한 것인데, 구직할 곳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다만, 4월과 5월의 경활인구 증감을 비교해보면 비경활 인구는 감소로 돌아서고, 이 감소의 대부분이 실업자로 이동해 실업자 증가폭이 취업자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조금씩 구인처가 생기면서 실직자들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3. 고용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면

3, 4월에 비해 5월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취업자 감소나 조업단축이 소폭이나마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하지 않는 한 다소간의 완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면 서비스 업종은 코로나 종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로 고용이 회귀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월 들어 약간의 개선 흐름 덕에 15~24세는 3, 4월에 비해 다소간 나아지는 흐름을 보였으나,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5월에 더 크게 감소했다. 20대 후반 연령 특성을 고려할 때 체험과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구성된 청년 일자리 대책에 정규직 채용 유인을 더 주는 정책 구성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4월 전망보다 6월 전망에서 우리나라 포함 세계 주요국 성장률을 하향 조정해 코로나 초기 종식 어려움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을 추가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당장의 소비위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와 경공업 등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증가, 해외투자에 의한 국내 생산 일자리 축소 등이 나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국 성장에 따른 수출 증대로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 증가, 무상 보육과 요양제도 확대 등 보건 사회복지 일자리 확대 같이 일자리 증가가 크게 나타나면서 양극화 및 불평등이 완화된 경험을 한 바 있다. 이번 코로나 위기는 단기적으로뿐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해외 공급망 단절로 인한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및 대면 활동을 줄이는 기술적 해결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비기술적이고 대면적인 일자리 위축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높아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재 일자리가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고용유지에 좀 더 노력하고, 동시에 코로나가 다소 진정된 국면에서 일자리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보여준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3차 추경을 통해 55만 개 일자리 창출 및 중기적으로는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제시한 바 있다. 갑자기 온 위기인 만큼 현재는 일자리 대책도 기존의 상상력에 제한되는 경향이 있으나, 각 업종들이 코로나라

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들이 창출되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교육격차를 야기하는 것을 막으려면 교육 소외 계층에게 노트북을 대여하는 것을 넘어서 뒤떨어지는 학습능력을 보조하고 공부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직접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주도적인 역할로, 그렇지 않은 민간영역에서는 지원을 통해 한국형 뉴딜을 넘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위기를 계기로 재택 등 스마트 근로 경험 확대가 기업문화 변화로 이어진다면 일 가정 양립 근로관행 확산 가속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관련하여 성과 측정과 관리, 임금체계, 원격 근무시 좋은 출퇴근 관리 관행 확산 등 제도 정비나 지원방안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거에도 표준적 근로방식 변경 필요성이 비정규직 증가의 계기로 작용한 바 있다. 재택근로 확산에서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EU 지역 재택근로자 비중은 2008년 7.7%에서 2017년 9.6%로 완만히 증가해온 가운데, 근로자(2.8%)보다는 자영업자(18.1%)에게서 크게 활용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대부분의 EU 국가에 공통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재택 등 스마트워크 증가는 일생활 균형 등 장점도 뚜렷한 반면 실제 확산이 크게 되는 일자리는 주로 자영업, 프리랜서일 가능성이 높아 지금도 이미 문제인 임금 근로 일자리의 자영업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번에는 비정규직 확대가 아닌 정규직 일자리가 유연하게 운영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사 당사자와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